

금남로에서

김재열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무관심하기란 쉽지 않다. 변화무쌍한 합종연횡과 박진감이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흥행요소를 완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의 제질이며 어김없이 수성이나, 협정, 협정, 불통과 같은 자극적인 단골 용어들이 언론에 등장하면서 흥미를 배가시킨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만큼은 예외인 것 같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선거 무풍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일찍부터 우열이 확연하게 드러난 데다 기초 자치단체와 의원 선거는 눈길을 잡아끄는 후보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선거 무관심은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지난 10년간 지방선거 투표율은 하락은 심각한 수준이다. 1995년 68.35%에 달했던 지방선거 투표율은 98년 52.6%에서 2002년에는 48.8%로 내려 앉았다.

이번에는 겨우 40%대를 유지할 것이다. 전망이 우세하다.

은총과 전복지역 표를 의식한 여당의 중간 역 신설 공약으로 저속철로 전락할 처지다.

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는데도 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가 늘어나는 이상현상은 공천과 관련한 각종 짐들이 빛은 정치권의 자작자득이다. 정당 공천제가 확대되면서 밀실야합이나 낙하산 공천과 같은 중앙정치 구태가 극명하게 표출됐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중앙정치 개입으로 '지방'은 사라지고 '선거'만 남은 셈이다.

우리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지방자치에 대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도록 규정한 학교급식 지원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주도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고 했다. 정치인에게 유권자 심판이야말로 종알보다 더 무섭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복권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다. 지역 살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보다 복권 당첨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차라리 투표하지 않는게 좋다. 투표율을 높이자는 불과도 참 일꾼을 뽑는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땅히 찍을 후보가 없고 경제가 어렵더라도 지방선거에 눈을 돌려야 한다. 유급제 전환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의 출마가 늘었다고 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역 일꾼으로 누가 더 적당할지 고르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4년 내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의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적 접근을 기대하기 어렵다. 후보자의 신상이나 이력이 담긴 선거공보나 우편물을 꼼꼼히 살펴볼 때. 언제까지 지방선거를 '그들만의 잔치'로 방치할 것인가.

〈논설위원〉 ajkim@kwangju.co.kr

유권자 따로, 선거 따로

월부터 실시되면서 10%이상의 유권자 찬성으로 시·도지사를 소환할 수 있게 됐다. 소수 조직화된 세력에 의해 지방자치가 좌우될 수 있다는 극단적 주론도 가능해진다.

지방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

한데는 정치권 책임이 크다. 정책선거로 심판을 받았던 정치권은 무책임한 공약 남발로 물건너간지 오래다. 광주·전

남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인 호남 고속철

터를 불신도 이제 떨쳐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상당수가 전과자니, 세금 체납자가 많다느니 하는 과거의 부정적 보도가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부채질했다.

국가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지방단체장들의 비위 사실을 공표하고 열린우리당이 부패한 지방권력 심판론을 주장한 것도 지방선거 열기를 끌어뜨리는데 일조했다.

지방자치 도입이 가져온 긍정적 측면이

[오피니언]

시설

평택사태 해결, 법치대응이 최선책이다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시위로 야기된 '평택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시위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데 이어 문정현 신부에 대한 강제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맞서 민주노총 역시 오는 13·14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지속적인 반대투쟁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평택사태 해결의 첨경이다. 평택사태가 유혈사태 까지 번진다는 일차적으로 정부 책임이 크다. 이번 사태는 땅이나 도로 개설과 같은 대형 국책 SOC 공사로 인한 토지 수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미군기지 확장·이전의 명분과 불가피성에 대한 당국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적지 않다.

미군기지 이전은 한미 양국이 오랜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반대측 현 법 소원도 이미 각하였다. 그럼에도 군용 철조망을 파괴하고 경비중인 군인들

을 폭행한 행위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선 것이다. 주민 생존권 확보는 뒷전인 채 주한미군 철수 구호를 위치하고 한·미·민·군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시도는 국민정서와도 배치된다. 법을 무시한 폭력시위와 평택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법치 대응과 함께 남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원하는 노력은 병행되어야 한다. 구속영장이 두차례나 무더기 기각된 것은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반증이다.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예산지를 짐벌하는 시위대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 법리상으로는 가능한 발상이나 세관기간 동안 민간인을 군시설에 수용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획일적인 강경 대응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참신한 엑스포 주제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

2012년 여수엑스포의 주제로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이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해양 수산부와 전남도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이니 만큼 이를 주제로 삼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번 주제가 21세기 말부터 인류가 추구해온 '바다'와의 교감을 한층 풍부하게 해주는 주제라고 본다.

후기산업사회 이후 인류는 고갈되는 자원, 오염된 대기와 토양, 기상이변과 식량난등 지구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바다를 탐구해왔다. 지구 표면적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바다는 그 자체로 무한대에 가까운 수자원인데다 육상생물보다 훨씬 많은 종(種)의 생물을 담고 있으며 해저면에는 미답의 에너지와 광물을 포함하고 있다. 선진국이 해양학(Oceanography)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여기 있다.

여수엑스포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은 최근 일련의 엑스포 주제라고 본다. 이를 엑스포가 해양과 수자원을 직접 다룬 것이라면 여수엑스포는 여기에 연안(沿岸)의 개념을 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간'을 포함시키고 있다. 연안은 그 자체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생물 환경이 인간이 바다를 향해 꿈꿀수 있는 공간이다. 인류는 여수엑스포에서 양수(羊水)속 태동하던 잠재의식을 일깨우며 지구의 미래를 새로 설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참신한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하부 프로그램을 갖추기 바란다.

無等鼓

조선 최대 여성 CEO(최고 경영인)하면 제주지역 거성이었던 김만덕을 끊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김만덕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기녀로 살다 20세 무렵 양민 신분을 회복한다. 당시 신분 회복의 지름길은 접이 되는 것. 하지만 김만덕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관아를 찾아가 당당한 태도와 논리로 본래의 신분을 되찾았다.

이후 김만덕은 행상으로 돈을 모아 포구에 큰 객주를 차린다. 물건을 위탁받아 팔거나 거간하는 중간상인 역할도 했다. 유통업에 대한 통찰력과 과감한 투자, 모험정신으로 변방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여성에게 강요된 시대적 굴레를 극복, 막대한 부를 모았다.

더구나 김만덕은 객주 운영에만 매진하며 결혼을 하지 않았다. 또 1795년 기근에 신음하는 민중들을 위해 전 재산을 관아에 기부한 실천적 자선가는 평기도 받았다.

요즘 여성들의 경영 일선 진출이 많이 달리졌다. 사장 5명 중 1명이 여자다.

얼마 전 세계여성경제인협회(FCEM)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54회째인데 아시아에선 처음 개최되는 것이라니 우리 여성기업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한다.

FCEM 서울총회가 국내 여성 CEO들의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문화예술교육이 없는 나라

법률용어에 인정신문(認定訊問)이란 것이다. 제1회 공판이 개시될 때 검사의 사건요지 진술에 앞서, 재판장이 피고를 향하여 그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이름, 나이, 본적, 거주지, 직업 등을 묻는 절차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인정신문과 도 같은 방식으로 첫 만남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판장이 피고인을 대할 때 '인정신문'하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접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디서 근무하는지 묻지 않고서 우리나라에서 대화를 시작하기란 쉽지 않

은 것이다.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예술 교육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능시험이나 대학별 고사에서 문화예술 관련 시험은 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수능 듣기평가로 음악 감상 시험을 본다면 어떨까? 아마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의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에 대한 밝언은 사뭇 충격적이다.

하기야 그분도 잘못은 없다. 변호사 명함을 갖기 위해 죽도록 공부하느라 음악 들을 시간은 없었을 테고 그분에게 고전음악 같은 것은 부자집 자식들의 전유물로만 생각 되었을 테니까.

이런 정책이 반복되는 한 대한민국은 늘 문화 개발도상국이다.

〈음악클립니스트·2005년 11월 수상자〉

은펜클립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곡예운전 삼가야

했다.

또 우리나라 14세 어린이 10만 명당 사고 인원이 4.1명으로 미국·벨기에·폴란드 등 3.5명, 일본·스웨덴·영국 등의 1.3명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아이들의 움직임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 조금만 부주의해도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

자신의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면 어떻게 할까. 운전자 스스로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김준현·광주 광산경찰서 교통지도계

기고



최호진

우리가 하나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는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생각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데에 과거의 고정된 틀을 벗어버리기란 또 얼마나 쉬운가.

차인표·신애라 부부가 둘째아이를 공개입양 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자 그동안 물물에서 오래도록 떠오르기만을 기다리던 공개입양이 긍정적으로 인식된 것이 그 좋은 예다.

그러나 국내입양, 공개입양은 연예인 부부가 관심을 끌기까지 각 입양기관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2005년 흘트아동복지회에서 주관한 '입양의 날' 제정 서명운동에 도우미로

실이다.

그날의 감동을 떠올리며 '입양의 날'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개정의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동(1)을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뜻을 담아 11일로 정한 뜻도 따뜻하다.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교육비, 의료비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그동안 폐쇄적 사회편견을 깨고 열린

참가했던 감회를 잊을 수 없다.

공개입양부모들의 모임과 병행된 이 행사는 가슴으로 넓은 아이와 배 아파 넓은 아이가 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공개입양 후 아픔을 이겨내고 떳떳한 입양을 말하는 그들은 행복해보였다.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모들일 것이다라는 편견을 깨고 이미 자신들의 아이를 기르고 있었으며, 입양 후 장애가 발견됐을 때 파악하리란 예상과는 달리 장애를 보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들은 부자도 아니었고 고학력자도 아니었으며 평범했다.

특별한 그 무엇도 없었다. 열린 의식과 사랑이 넘쳤다.

연예인 부부의 공개입양이 전 국민에게 입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날 울고 웃던 이름 없는 양부모와 입양기관들이 노력한 결

과이다.

사고로 입양을 결정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망설여왔던 예비양부모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아직 입양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한 가족의 패러다임을 열린 가족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여론조성을 큰 뜻을 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열린 사회에 맞는 열린 가족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입양이 비밀스럽게 조건에 맞는 아이만을 선호하거나 불쌍하게 버려진 한 아이를 데려와 키워준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벼려야 한다.

열 달 배 아파 아이를 낳듯 정성스럽게 준비해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적극적인 입양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한 가족, 한 아동, 건강한 새로운 가족이 더 많이 불어나 그들의 사랑이 행복한 세상에 넘쳐나길 바란다.

〈흘트아동복지회 광주상담소 후원자〉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예방 당국이 나서야

최근 기획부동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토지를 비싼 가격에 분양해 일반 부자에게 피해를 주는 토지개발 및 매매업을 말한다.

또 각종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어 투자자를 속이기도 한다. 당국은 기획부동산 사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등기 전매 등 위법 여부를 절저히 하려고 한다.

정부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을 세우지 말고 많은 신경을